"독재타도" 22년만에 등장

광주 금남로 '6·10 범국민대회' … 국정운영 기조 전환 촉구

화물연대 300여명 총파업 출정식

시민단체·의회 시국선언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대학생 등이 연대해 개최한 '6·10 항쟁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일부 통제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충돌은 없었다. 특히 6·10 항쟁 22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국정운영 기조 전환'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줄을 이었다.

◇6·10 항쟁 국민대회=진보·노동·교육·여성·환경·종교·정당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6·10 항쟁 정신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광주·전남준비위원회'는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길에서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10 항쟁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리명한 6·10 대회 준비위원회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노래·횃불 공연,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영상, 6인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수호' 'MB 악법 폐지' '한반도 평화 사수' 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자로 나선 현지 스님은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6·10 항쟁 22주년을 맞았지만 민주주의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일방적·독재적인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한편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모든 국민의 '독재타도'란 말을 듣고서야 반성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전남대총학생회 등 대학생 100명은 이날 전남대를 출발해 광주역·대인광장·한미쇼핑·옛 삼복서점까지 도보로 4.5㎞를 이동, 국민대회 참가행진행사를 연 뒤 6·10 항쟁 국민대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행사 현장 주변에 경찰 인력 300명을 배치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6·10대회 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서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금남로 6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에서만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의 '집회 일부 통제' 방침을 수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참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자 행사 시작 40분 만에 차선을 전면 통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300명은 이날 광주공원 원형다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6·10 항쟁기념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열린 6·10 항쟁 국민대회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8일부터 간부들이 먼저 파업을 시작했으며 화물연대 본부가 11일 오전 0시 총파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전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광양항을 중심으로 물류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시국선언 잇따라=목포 YMCA와 광양참여연대 등 28개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대의를 따르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민심은 천심인데 다수 의석만 믿고 국가를 독단으로 운영한다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운하 건설과 집시법, 미디어법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은 이날 6·10 항쟁 국민대회에서 '흔들리는 민주주의 청소년이 지켜냅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되살아난 금남로 촛불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길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시민·노동·학생 등 1천500명이 촛불을 든 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구청 고위공무원 며느리 성추행 '징역형'

징역 1년 6월·집유 2년

광주의 한 자치단체 고위간부가 성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최근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광주시 모 구청 고위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며느리인 B씨를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B씨가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아들 부부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며느리 B씨를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소 당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남편과 혼수문제로 다툼이 생겨 집을 나온 뒤 시아버지의 성추행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며느리가 이혼과 관련해 무리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모함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항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 검찰의 1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대응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며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통사고 내 숨진 초등생 야산 유기

북부경찰 4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0일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L(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C아파트 인근 앞길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자신의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내 승합차에 시신을 실은 뒤 사고 현장에서 15㎞ 떨어진 담양군 창평면 인근 야산에 남자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실종신고된 광주 모 초교 4년 A(10)군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L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유기 장소 주변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오락실 '뒷돈' 총경 징역 1년

광주지법 선고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0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김모(56) 총경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단속의 총 책임자였던 김 총경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 편의 등의 봐준 것은 전형적인 경찰관 부패사건"이라며 "이는 청렴하고 공정한 경찰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 범죄여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총경은 지난 2007년 4~6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업주 박모(47)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김 총경을 직위해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운전자 바꿔치기 조폭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25)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A(19)씨를 협박,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퇴직한 회사서 1천만원 물건 훔쳐

쌍나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회사 창고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쳐온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10일 퇴사한 회사의 창고에서 물품을 훔친 송모(31)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송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S전자 창고에 몰래 들어가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구리파이프를 차량에 실어 훔쳐낸 혐의.

○…송씨는 퇴직 당시 반납하지 않은 회사 열쇠를 이용해 창고에 침입했는데, 경찰에서 "회사를 그만둔 뒤로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